

'오월어머니의 노래' 순회공연, 첫발부터 '삐끄덕'

SOCIETY

2025년 3월 20일 목요일

대형업체 입찰에 5·18공법단체 문제 제기...계약 연기 1순위 A업체 "정당한 절차 선정...항의 직권남용 우려"

1980년 5·18민주화운동으로 가족을 잃은 오월어머니들의 한을 노래로 승화한 '오월어머니의 노래' 공연이 난항을 겪고 있다.

공연대행 업체 선정을 두고 해당 사업과 관련이 없는 일부 공법단체가 항의의 방문을 하는 등 문제를 제기하면서 계약이 연기되는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19일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등에 따르면 '오월어머니의 노래'는 지난 2022년 서울, 부산, 광주 순회공연을 통해 전 국민과 함께 오월가치를 나누고 희생자 가족에게는 트라우마를 치료하

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특히 '오월어머니의 노래'는 5·18민주화운동 당시 가족을 잃은 오월어머니들의 40여 년의 한을 노래로 승화한 공연으로, 가족을 잃고 굴곡진 인생을 살아온 어머니 15명이 가슴 속 문은 이야기를 노래로 풀어내고 있다.

해당 공연은 문제부가 입찰로 선정된 공연대행 업체를 통해 진행되고 있다.

올해도 문제부는 지난달 11일 사업비 4억7680만원이 투입되는 '2025 오월어머니의 노래 국내·외 공연대행 운영' 입찰공고를 진행했다.

이후 같은 달 25일 개찰이 이뤄졌고, 지난 4일 A업체가 종합평점 99.87점(입찰가격점수 9.87점, 기술평가 최종점수 90점)으로 우선협상자로 선정됐다. 경쟁했던 B업체는 종합평점 97.3점(입찰가격점수 10점, 기술평가 최종점수 87.3점)을 받았다.

하지만 올해 공연이 첫발을 떼기도 전에 삐끄덕하고 있다. B업체 관계자가 소속된 5·18공법단체가 이번 업체 선정 과정에서 무언의 압박이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와 관련 지난 10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서구의회 일원에서 '구도청 5월 24일 프래젠테이션(PT) 발표'를 했다.

이에 대해 A업체 관계자들은 전면 부인하면서, 오히려 일부 공법단체의 행동이 직권 남용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 지적

하고 있다.

실제로 A업체는 이번 업체 선정 과정에서 B업체가 주장하는 내용을 알리지 않았고, B업체 등도 입찰이 끝난 뒤에야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월어머니의 노래' 행사는 ACC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5·18공법단체의 '오월 사업'들과는 별개로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공법단체 회원들은 이번 업체 선정을 두고 지난 10일 서구의회를 항의의 방문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지난 10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서구의회 일원에서 '구도청 5월 24일 프래젠테이션(PT) 발표'를 했다.

아울러 지난 4일 조달청 입찰 결과가 나오기 전에 공법단체가 서구의회를 찾아 항의한 사실도 확인되면서, '입찰 결과를

미리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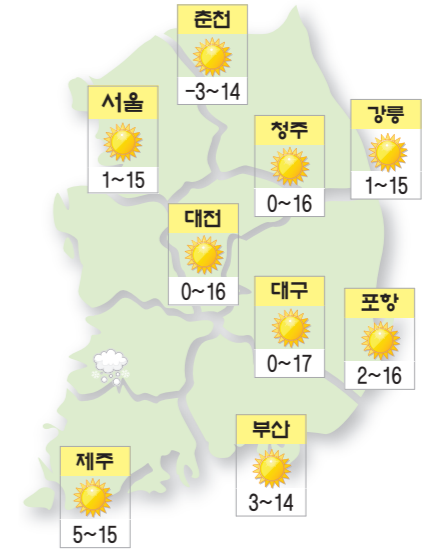
이외에도 지난해 '오월어머니의 노래' 공연을 진행한 B업체가 공연 당시 '가족이 함께하는 무대'에 외부인을 서게 해 공연 취지를 퇴색시켰다는 논란도 일고 있다.

A업체 관계자는 "B업체와 일부 공법단체의 주장을 납득할 수 없다. 정당한 입찰 과정을 거쳐 선정된 것이다"며 "해당 사업과 관련이 없는 공법단체가 앞장서 항의하는 것은 오히려 직권남용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행사의 주인공인 오월어머니들은 뒷전으로 밀려났다"며 "오월 관련 행사라고 해서 무조건 오월 단체 관련 업체가 해야 된다는 관습도 없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오늘의 날씨

☀️ 예보 06:36 달맞이꽃 ---:--
☁️ 예보 18:44 달맞이꽃 09:19



지난해 전남 화재 절반은 '전기적 요인'

KC 인증제품 사용 등 당부

전남경찰청 화재감식전담팀 관계자는 "화재 예방은 발화원인 규명을 통한 대책 마련 등 기술적·제도적 개선책이 필요하지만, 예고 없이 찾아오는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선 나와 가족, 이웃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안전수칙 준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전남경찰청은 KC 인증제품을 사용하는 것과 낡은 전기배선 수리 확인·교체, 콘센트·가전제품 먼지 청소, 누전차단기 작동 확인 등 정기적인 점검과 안전한 사용법 숙지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또 건조한 날씨에 는·발 태우기, 담배꽂초 투기, 쓰레기 소각행위를 하지 않는 등 작은 관심만으로도 충분히 부주의에 의한 화재는 막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

최현 전남경찰청 과학수사계장은 "화재는 '괜찮겠지'라는 한순간의 방심에서부터 시작된다"면서 "기본적인 화재 예방 안전 수칙을 준수하는 것이야말로 대형 사고를 막고 평온한 일상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전남경찰청 화재감식전담팀 관계자는 "화재 예방은 발화원인 규명을 통한 대책 마련 등 기술적·제도적 개선책이 필요하지만, 예고 없이 찾아오는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선 나와 가족, 이웃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안전수칙 준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전남경찰청은 KC 인증제품을 사용하는 것과 낡은 전기배선 수리 확인·교체, 콘센트·가전제품 먼지 청소, 누전차단기 작동 확인 등 정기적인 점검과 안전한 사용법 숙지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또 건조한 날씨에 는·발 태우기, 담배꽂초 투기, 쓰레기 소각행위를 하지 않는 등 작은 관심만으로도 충분히 부주의에 의한 화재는 막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

최현 전남경찰청 과학수사계장은 "화재는 '괜찮겠지'라는 한순간의 방심에서부터 시작된다"면서 "기본적인 화재 예방 안전 수칙을 준수하는 것이야말로 대형 사고를 막고 평온한 일상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대숲 산책 19일 전남 담양 죽녹원을 찾은 이들 관광객들이 대숲이 우거진 산책로를 걸으며 봄기운을 만끽하고 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만취 운전 중 교통사고...동승자 1명 사망

음주운전 사고로 함께 타고 있던 지인을 숨지게 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해남경찰청은 1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치사 혐의로 60대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18일 오후 7시42분 해남군 북평면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자신의 차를 운전하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 조수석에 동승한 60대 지인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A씨와 또 다른 동승자 C씨

도 경상을 입어 소방당국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A씨는 동승자들과 함께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득 후 수차례인 0.1%인 것으로 측정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동승자 C씨에게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 중이다.

해남=성정수 기자 sjs8239@gwangnam.co.kr

봄철 이륜차 교통사고 주의보...치사율 20% 육박

최근 3년간 1036건 발생...사망 40명·부상 1347명
다발지역 광주 7곳·전남 5곳...해빙기 포트홀 주의

광주·전남지역에서 이륜차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봄철인 3~5월에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교통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9일 한국도로교통공단 광주·전남지부에 따르면 지난 3년간(2021~2023년) 광주·전남지역 이륜차(원동기, 사륜ATV 포함) 교통사고는 3755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로 인해 130명이 사망하고 4967명이 다쳤다.

이중 3~5월 봄철에 발생한 이륜차 교통사고는 1036건이었고, 사망자는 40명, 부상자는 1347명에 달했다.

이륜차 교통사고는 전체 교통사고(4만

6944건)의 8% 수준이지만, 치사율(교통사고 100건당 사망자수)은 3.5%로 전체 교통사고 평균치사율(1.8%)의 1.9배에 달했다. 특히 봄철 이륜차에 의한 사망자는 40명으로 같은 기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19.4%를 차지하고 있다.

이륜차 교통사고 다발지역(반경 100m 이내, 4건 이상 발생지역)은 광주 7개소, 전남 5개소로 조사됐다.

광주지역에서는 동구 1곳, 서구 4곳, 광산구 2곳이 선정됐다.

동구 금남로4가역 교차로 부근, 서구 쌍촌동 상무시장 부근·마리아어린이집 부근·상무지구입구 교차로 부근과 동천

동천과칠소 부근, 광산구 월계동 백약국 부근·신창동 신창대형약국 부근 등이었다.

전남지역에서는 목포시 1곳, 여주시 1곳, 순천시 3곳이 분류됐다.

순천시 조례동 조례사거리 부근·연향동 여성문화회관 사거리 부근·조례동 흥대포차 부근을 포함해 목포시 상동 무진장식육포리교차로 부근, 여주시 여서동 공원집 부근 등이었다.

정읍시 한국도로교통공단 광주·전남지부 본부장은 "봄철은 날씨가 따뜻해지면 이륜차 이용이 증가하는 시기이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면서 "특히, 봄철 해빙기 도로에 균열이 생겨 포트홀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으므로 운행 시 노면 상태를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광주	☀️	0~15
목포	☀️	3~12
여수	☀️	2~14
순천	☀️	-1~16
구례	☀️	-2~15
광주	☀️	-1~14
임도	☀️	3~15
진남	☀️	6~14
고흥	☀️	-1~15
진도	☀️	3~13

장애인 접근·대출금 가로채

만년필 ○○중증지체장애인의 명의로 받은 은행 대출금 등을 쟁건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져.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은 영리유인, 중감금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A씨는 올해 1월 초 공법들과 함께 중증지체장애인의 피해자 B씨에게 접근해 은행 대출·휴대전화 개통·가전제품 렌탈 등을 통해 12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 1월 21일부터 2월 8일 사이 광주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감금 폭행하고 물구나무서기, 엎드려뱉치 등 각종 가혹 행위를 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져.

A씨 측은 이날 재판에서 영리유인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했지만, 중감금치상 행위는 없었다며 폭행·감금 등을 부인.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안전보습 몬스타수분

TONYMOLY
street culture

EWG Green 등급 원료 처방
순도 100% 발효농차 사용

THE CHOK CHOK GREEN TEA Watery Cream
CONTAINS 100% PURE GREEN TEA FERMENT EXTRACT
Instead of distilled water
TONYMOLY

토니모리 더촉촉 그린티 수분크림